

序^서

이번 임신대동보 壬申大同譜는 참으로 힘든 대역사 大役事였다. 서기 西紀一六三四年 천과공 天坡公께서 자비 自費로 갑술보 甲戌譜

를 내시고 그 후 後 八十四年^년만에 해창위공 海昌尉公과 정랑공 正郎公께서 자비 自費로 무술보 戊戌譜를 펴내신지 꼭

二七〇年^년만에 처음으로 수단비를 않 내는 대동보무료편찬위원회 大同譜無料編纂委員會를 서기 西紀一九八八年^년 四月^사 二日^일

발족 發足하여 동년 同年 四月^월 十二日^일 대종회보 大宗會報二號에 공고 公告하였으며 동년 同年 五月^월 十二日^일 동아일보 東亞日報와

신문 新聞에 공고 公告하였다.

그 내용 內容은 수백년 이래에 걸쳐 수단비와 누보채 무보채를 거두는 일로 누보와 무보자를

많이 발생시켰으므로 이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무료수단을 하겠다고 공고 公告

하였다. 그런데 너무나 애로가 많았다. 고난의 세월의 연속이었다. 무료수단이란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런 보수없이 자원봉사 하면서 무료편찬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많은 뒷받침

이 필요하다. 일상경비며 사무실 유지비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 사무실에 나와 있을 사람

도 문제이다. 불고가사 不顧家事하고 무보수로 몇 년간 年間을 어느 분이 나오겠는가. 그러니 어려움은

더한 것이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한문 漢文도 많이 알고 같이 문제를 풀어줄 지식 知識수준의

同志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自願奉仕會를 組織하고 會長에 漢根氏 副會長에 柱河氏를

선출했다。 허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일을 成事시키는 데도 一年이 걸렸다。

그런데 一九八八年 여름을 지나면서 異變이 생겼다。 門中에서 들고 일어나 수많은 分들

이 환영하고 나서는가 하면 다시 編纂委員會를 開催할 것을 재촉하는 일이 빗발치듯 매일

같이 쇄도하게 되었으니 分들의 뜻을 받아들여 一九八八年九月九日 八堂에서 大盛況裡에

二次編纂委員會를 열고 自願奉仕會도 大대의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大同譜無料編纂의 強力

推進을 決議하고 着手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早速한 時日內에 수단을 完了할 것과 印

刷費는 各門中에서 責任지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애로는 또 생겼다。 일부에서는 수단비를 꼭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다가 會議에서

부결되자 그 다음에는 門中別로 돈을 거두어 培養里 世德壇을 새로 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

다。

培養里 世德壇은 始祖公以下 十二位를 奉祀하는 祭壇으로 英祖壬午 西紀一七六二年 宗

中代表가 모여 창건했으니 지금부터 二三〇年前에 세워졌으며 日帝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神社參拜를 강요하면서 日語만 쓰게 하고 姓까지 바꾸고 뺐었으나 당시 어른들은 굽히지 않

고 그들이 敗亡하기 一年前까지도 최후 발악하는 그들에게 抵抗하면서 一九四四年十月에

世德壇에 모여서 大崇宗會議를 열고 崇祖의 忌辰으로 宗憲을 채택하였으니 祖上의 業이 담

긴 유서 깊은 곳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니 누구든 異議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門中別로

돈을 거두면 無料收單의 意味를 축소 희석시키는 것이므로 莫大한 支障이 생길 것으로

근심들 하고 있었는 데 이때 獨지가가 나타났으니 贊成公 十八代孫 厚範賢宗이다.

世德壇의 重建은 내가 말을 것이니 宗人들의 돈은 걸지 말라고 당부하고 文化財委員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一九八九年九月에 着工하여 혼자서 莫大한 돈을 투자하고 心血을 기울

인지 六個月만인 一九九〇年四月十日 世德壇을 文化財規格에 손색이 없도록 竣工하여 海州

吳氏大同宗親會史에 찬란한 빛을 남기었다.

한편 門中代表와 自願奉仕要員들은 大端히 기뻐하면서 수단하는 일에 拍車를 加하였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고 原稿記載 착오등으로 再作成하는 일과 수많은 問題들이 各門中마

다 야기 되어 일들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꼭 배우고 싶다는 의욕들이 드높아지면서 어려움들

을 克服해 나갔다. 지금까지의 先例는 수단용지에 적어다주면 몇 사람만이 알고 맞추어 가

면서 원고지에 記入하였으나 이번에는 門中後人들 教育을 위해서 수단용지와 원고지를 本

會에서 지급하고 수단한 것을 檢討하여 원고지에 記錄方法을 세밀히 알려 주어서 한번 작

성해본 이는 언제든지 派譜나 家牒을 만들 實力을 쌓도록 하는데 目標을 두고 추진하였으

니 그 結果 譜를 못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實力이 많이 向上되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흘

어져 사는 일가들을 찾는 어려움 때문에 三年이 다가왔으니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一九九二年에 있을 三大選舉철이 되면 印刷費의 大幅引上等으로 부담이 加重될 것을 염려

하여 一九九一年四月三十日까지 收單을 마감하고 編輯에 들어가면서 年內에 마무리하여 조

금이라도 저렴한 價格으로 普及하고자 編纂委員長 漢根 幹事 鎬泳 編纂委員 禧術 柱河

氏等 편집진에서는 不撤晝夜 혼신의 勞力과 땀의 結果로 大同譜十卷의 編輯을 所定期日內

에 마치었으니 돌이켜 보면 지나온 滿三年半 한푼의 보수도 없이 使命感으로 일을 해낸 功

績이야 어찌 金錢이나 筆舌로 갚을 수 있겠는가 마음깊이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大同譜無料編纂의 新紀元을 이룩한 일은 後人들에게 훌륭한 敎訓과 傳統이 되어 이

譜冊과 함께 永遠한 빛이 될 것이다. 아울러 門中代表 여러분과 自願奉仕要員 여러분의 勞

苦에 衷心으로 敬意를 드리며 印刷에 있어 정밀한 계획과 校正으로 애써주신 起鍾 金鍾 珍

會長과 李尚俊 社長에게 甚深한 謝意를 表한다.

어려움이 많았으니 現代와 같이 參與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家道를 세우고 지키느라 애쓴
 흔적은 많이 나타난다. 亂世를 만날수록 愛國心이 더하고 家族이 離散될 수록 그리움이 더
 한 것은 人之常情이며 하늘의 理致인 것이다. 父子之間 또는 祖孫間에 서로 헤어지면서 다
 시 만나자고 써서 준 것이 家牒이며 家乘이며 이를 모은 것이 譜인 것이다. 이들을 無視한
 譜는 成立되지 않는다. 孔子께서도 부부가 있는 연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연후
 에 君臣이 있고 君臣이 있는 연후에 上下가 있고 上下가 있는 연후에 禮義와 돌바를 아느
 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來歷과 順理를 따르지 않고 한 家門의 家乘에만 맞
 추려고 無理를 해서도 안된다.

지난날 譜에도 잘못 기록된 部分이 있다. 이것을 또 그대로 한다면 잘못은 늘어나게 마
 려이다. 十四世 潔公은 百年을 後退시켰고 或은 七世 陞公의 年代를 말한 이가 있으나 이
 는 同福人의 記錄을 誤植했음이 드러났고 또한 克敬公의 年代記錄을 先敬公으로 바꾼 것도
 드러났다. 밝혀진 것을 숨기면 제 二 제 三의 잘못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걱정하는 것
 이다. 延安人 李昉도 한 두분이 아니다. 高麗史에도 두분이 있는데 어찌 앞에 분은 빼고 뒤
 에 분으로 단정하여 사위라 할 수 있는가. 一九八三年版 延安李氏追遠譜에는 配位가 없는

데 누군가 중앙도서관 열람실에 공람되어 있는 이 보책 譜冊에 편으로 배위 配位 海州吳氏라 가필 加筆하여

他姓譜까지 오손 汚損시켜 놓았으니 일가간에는 물론 勿論 他姓에 까지 누 累를 끼쳤음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본관 本貫은 海州이며 海州吳氏이다. 楊州나 廣州吳氏는 분명 分明 아니다. 高麗時代는 海

州에서 많은 출사 分들이 出仕하였다. 그 중 中에서 특별 特別히 뛰어난 국가 國家에 크나큰 공헌 貢獻을 하신

분이 문양공 文襄公 회연충 (諱延寵) 과 문온공 文溫公 초회한경개회형 (初諱漢卿改諱誦) 두분이시며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海州條人物란에는

위 기록 두분만의 記錄이 있을뿐 그 외 外는 海州崔氏 海州鄭氏들만 기록 記錄되어 있다. 이것은 이조 李朝

성종시 成宗時 영상 領相을 지낸 노사신등 盧思慎等 십여인 十餘人이 서기 西紀 一四八一年에 지은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海州

吳氏의 중추인물 中樞人物이 문양공 文襄公 과 문온공 文溫公 두분이었음이 명확 明確하고 고적 古跡과 사기 史記에도 두분은 海州

人으로서 기록 記錄되었으니 海州吳氏門中의 빛은 두분이 있음으로 더욱 빛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 高麗가 망 亡하고 조선조 朝鮮朝에 들어와서 한양 漢陽에 있는 일가들이 고려공신제사 高麗功臣祭祀를 개성 開城부근에서 지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적 時代的 모순을 잘 입증 立證한 예 例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전제군주 專制君主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 時代였지만 개성 開城으로 가는 것

마저 꺼렸다면 도 道에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예 例로 어느 특정세도 特定勢道家가 생기면 그에게

舊時代구시대를 비난하고 高麗時代고려시대에는 海州吳氏해주오씨가 살지도 않았다고 宗人종인들을 현혹시켰다면 이 또한 先祖선조에게는 累누가 되고 門中문중에는 혼란이 된 것이다. 前王朝전왕조가 亡망해도 自己祖上자기조상의 祭祀제사 지내는 것까지 접을 먹고 몸을 사리고 내 祖上조상이 아니라고 否認부인까지 했다면 이는 道理도리에 어긋나며 百步백보를 양보해서 新王朝신왕조에 참여하느라 그랬다고 善意선의로 해석해도 時代的罪惡시대적죄악이었음은 否認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가야 결핍하면 三族삼족을 죽이던 時代시대였으니 宗族보전을 위해 서는 있는 족보도 숨겼던 것이다. 族譜와 家乘가승이 있는데 誌石지석을 왜 묻는가 이는 後日후일의 患難환난을 염려해서인 것이다.

開城개성에서 北북으로 二十里이십리쯤 되는 洞동 弘化里홍화리 吳李陵洞오리능동에 있는 文襄公墓문양공묘에는 많은 分분들이

參祀참사해 왔다. 또한 그곳은 나의 外家외가가 있는 곳이라 어려서부터 많이 다녔고 吳李陵洞의

由來유래도 吳延寵公오연총공과 府夫人李氏부부인이씨의 墓묘가 있어서 後人후인들이 그분들의 德덕을 기려 吳李陵洞이라

하였고 倭人왜인들이 누차 墓묘에 침범하였다가도 住民주민들에게 發覺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곳이다.

그런데 한양 일가들이 의심하는 이가 있어서 一九二三年년 長湍郡장단군 津西面진서면 田齋里전재리에 사는 鼎정

根氏근씨등 여러분이 숙의하여 후시나하고 墓묘앞을 파고 찾아낸 것이 文襄公誌石문양공지석이다. 이를 確

인 즉시 한양으로 옮겨졌고 장안에는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렇게 傳전해오고 있다. 그런 誌石지석

을 다시 원위치에 가져다 묻지도 않고 탁본이나 사진촬영도 않고 原文도 없이 戊辰譜에 어

물어물 否認하면서 證據인멸에 힘썼다는 것은 門中の 일이요 祖상에 관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가 막힌다. 역사의 현장을 말살시키고 무엇을 얻고저 함인지 참으로 답

답하다. 保存할 것을 잊으면 詭辯이 관을 치게 마련이다.

우리 後孫들은 옳게 확인된 部分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야 한다. 多幸이

前大同宗親會長 吳起善先生이 一五〇〇年代부터 내려오는 原文을 確認 發表하였고 그 後에

도 여러 門中에서 보관되던 記錄이 보이니 千萬多幸한 일이며 우리 後孫에게는 자량이 아

닐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고적을 얻어서 祖上の 遺志를 받들고 門中돈목에 힘써야 할 것

으로 믿으며 지난 三年有餘 自願奉仕要員과 門中代表들이 不顧家事하고 오직 譜事에만 열

중한 나머지 實로 海州吳氏大同譜史上 戊戌譜以後 二百七十年만에 처음으로 漏譜와 無譜의

폐단이 되었던 수단비를 없애고 大同譜無料編纂을 하게 되었음을 全宗親 여러분과 함께 感

謝해마지 않으며 앞으로 大同譜無料編纂의 전통을 이룩한 泳煥 編纂委員長 族弟 漢根 副委

員長 族叔 鎬泳 幹事 禧術 柱河 編輯委員 常任委員과 門中代表 여러분의 勞苦에 심심한 경

의를 表하며 이러한 뜻이 바로 전해져 門中の 빛이 되고 大和合에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다.

西紀一九九二年二月十六日

前國防部長官 後孫 滋福 謹書

序

임신대동보 壬申大同譜의 편집이다 되었으니 門中元老로서 한 말씀 해야 한다고 大同宗親會長 泳煥

씨씨의 부탁이 있어서 平素에 生覺하고 있던 것을 쓰고자 한다.

우리의 始祖 仁裕公께서 海州로 오셔서 西紀九八四年부터 사셨음으로 至今으로부터 千年

이 조금 넘는다. 그 後孫들이 번연해서 南韓에만 四十萬이 살고 있고 南北韓과 海外에 있는

모든 이를 합하면 百萬에 이른다. 이렇게 수많은 後孫들은 現在 全國坊坊谷谷과 海外 여러

나라에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고 本然의 직분에 充實함은 勿論 門中敦睦에도 남다른 誠意

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이의 가슴에 위로는 한 祖上이요 내려와서 百萬에 이르는 後孫 모

두가 한 일가인줄 알고 있다. 이분들이 모두 共感하는 千年史를 照明하고 흘러 온 자취를
 강물 흐르는 것을 보듯이 自然스럽고 順理대로 엮어서 누가 보아도 땃땃하고 당당한 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李朝 때는 高麗時代의 功績이나 功臣을 찬양할 수 없었으므로 高麗時代 祖上을 繼代로 記

錄 못할 處地였음도 애석한 일인데 이것을 기화로 一部에서는 千年史를 五百年으로 바꾸고

高麗 때 海州에는 先祖들이 살지도 않았고 歷史上 海州人으로 나온 분도 모두 公민왕 때라고

우기니 卽 李太祖와 같은 時代요 李朝人이라고 억지를 쓰다 보니 譜上에 海州人은 한 분도

없고 海州에는 墓地가 한 기도 없으니 海州 吳氏 譜라 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다. 百年前까지도

교통 통신의 不便等 어려움이 많아서 漢陽 가까이 있는 집들만 수단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 上系의 墓地等을 살펴보면 廣州 땅에서 始作된 인상이 짙고 中世까지의 墓地와 餘他記

錄도 廣州와 楊州外에 다른 記錄은 別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高麗를 나쁘게만 말해

야 할 시대였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며 이제는 專制君主時代가 아니니 모든 記錄을 찾아서

確認된 것만이라도 바로 記錄해야 한다. 高麗建國以來 近世에 이르기까지 千年 동안 北으로

國土가 넓혀진 일은 오직 단 한번 尹瓘將軍과 吳延寵將軍이 元帥와 副元帥로서 西紀一一〇

七年^년 咸興에서 豆滿江^{두만강} 北^북쪽 七百里^{칠백리} 地點^{지점}에 있는 先春嶺^{선춘령}까지 나아가 千餘里^{천여리}의 땅을 넓혔고 西^서

紀^기一三七〇年^년에는 공민왕이 그후에는 崔瑩^{최영}將軍^{장군}이 失地回復^{실지회복}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

므로 文襄公^{문양공}(吳延寵^{오연총})과 文肅公^{문숙공}(尹瓘^{윤관})의 拓地^{척지}의 業績^{업적}은 中近世^{중근세}사

한 文溫公^{문온공}(諱^{회형}初諱^{초회}漢卿^{한정})과 中陸公^{중육공}이 古跡^{고적}과 文書^{문서}에 瓘^관의 海州人^{해주인}으로 나타나는데도 高麗^{고려}

時代人^{시대인}은 우리의 先祖^{선조}가 아니라고 否認^{부인}만 하는 해괴한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譜^보상에

도 많게는 三十五^{삼십오}六世^{육세}된 門中^{문중} 普通^{보통}은 三十^{삼십}세

千^천年^년史^사의 世代平均^{세대평균}을 計算^{계산}하면 三十五^{삼십오}世^세된 집안은 一^일世^{세대}代^대平均^{평균} 二^이十^십八^팔年^년 보통은 平均^{평균} 三^삼十^십年^년

그리고 늦은 집은 平均^{평균} 四^사十^십年^년 정도이니 이는 正^정常^상的^적인 系^계譜^보이다. 上^상系^계의 年^년代^대는 甲^갑戌^술譜^보와

戊^무戌^술譜^보에도 記^기錄^록되어 있지 않다. 祖^조上^상님들의 記^기錄^록을 보면 族^족譜^보를 六^육十^십年^년以上^{이상} 지나서야 修^수譜^보

하였으므로 三^삼十^십年^년마다 修^수譜^보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든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 이를 뒤집

어 三^삼十^십年^년이 一^일世^{세대}代^대라 하면서 祖^조上^상의 年^년代^대를 尺^척度^도를 삼으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아들을 三^삼十^십年^년마다 꼭 두어야 한다고 法^법制^제化^화할 수 있는가 七^칠十^십歲^세에 子^자도 있고 二^이十^십歲^세에

子^자도 있으며 딸만 있고 아들을 못둔이도 있다. 그런데 年^년代^대를 모르는 祖^조上^상은 그대로 두

어야지 三^삼十^십年^년씩 丈^척추려는 것은 理^이解^해할 수 없는 일이다. 百^백年^년이면 六^육代^대가 될 수도 있고 二^이

이

代대가 될 수도 있으며 짐짐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삼십년
 主體性주체성도 없이 내집과 맞지도 않는 사돈집 行列항렬을 대고 天倫천륜을 모두 하면서 까지 推定추정이니
 比定비정이니 하며 上系상계를 混沌혼돈시키고 도리어 宗人종인들에게 호통치던 專制전제暗黑時代암흑시대에 있었던 思사
 考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또한 일가간에는 富貴부귀貧賤빈천을 떠나 枝葉지엽的인 것은 大體대체를 위
 하여 고집하지 말고 서로 비방해서도 않된다. 그간 全任員전임원이 一致團結일치단결하여 어려운 여건하
 에서도 不顧家事불고가사하고 多年間다년간 애써 많은 考證고증을 찾고 譜보의 正常化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功勞공로는 實
 로 크며 門中문중의 빛이 될 것이니 앞으로 더 많은 古蹟文獻고적문헌과 史料사료를 調查研究조사연구하여 옳은 것
 을 찾아서 崇祖睦宗송조목종의 大義대의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大和合대화합의 次元차원에서 無料編纂무료편찬을 위하여 自願奉仕자원봉사한 任職員임직원 常任委員상임위원 門中代
 表표여러분의 意志의지를 바로 알고 참으로 훌륭한 전통이 되어 祖上조상을 섬기고 門中문중을 위하는
 마음을 되찾아 이 譜冊보책이 책으로서 끝나지 않고 서로를 알고 가르치며 和合화합에 힘쓰는 章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西紀一九九二年二月十六日

前國會議員 海州吳氏大同宗親會長

現辯護士 後孫 制道 謹書

海州吳氏大同譜卷之一上系

始祖

吳仁裕 오인유

高麗軍器監監享南
楊州郡真乾面培養
里世德壇

二世

子周裔 주예

內庫副使享南楊州
郡真乾面培養里世
德壇

三世

子民政 민정

文科秘書省監享南
楊州郡真乾面培養
里世德壇

四世

子札 찰

文科太子詹事府詹
事追封金紫光祿大
夫尚書省左僕射享
南楊州郡真乾面培
養里世德壇

五世

子昇 승

大悲院錄事追封史
部尚書享南楊州郡
真乾面培養里世德
壇

六世

子孝成 효성 后

大護軍享世德壇

子孝純 효순

知白州事追封太尉
上柱國司徒門下侍
中同平章事諡文忠

配兆陽趙氏父尚書泳
享南楊州郡真乾面
培養里世德壇

子孝冲 효충

豐儲倉丞

配龍仁李氏父都濟廐
判官蜜享南楊州郡
真乾面培養里世德
壇

子孝銓 효전

備巡衛保勝郎將享
南楊州郡真乾面培
養里世德壇

子孝孫 효손

書雲副正

配固城李氏

海州吳氏大同譜卷之一上系